

액체 근대의 상호작용

- 유료 커뮤니티랩 빌라 선샤인을 중심으로 -

정혜인 (전남대학교)

1. 들어가는 말

칸트의 전회는 모든 인간이 보편타당하게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즉 이성이 있다는 사실화였다. 이러한 사상은 산업자본주의의 도래와 조용하며 이상화된 인격 유형을 도출하였다. 그러한 인격 유형은 합리적인 인간이다. 우리는 오래도록 산업자본주의의 경영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미래에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을 계산해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다. 합리적 인격의 이상은 고체 근대의 속성에서 기인한다. 고체 근대 역시 자본을 확장하기 위해 부기를 사용하는 등 합리적이고 계산에 능해야 했다. 또한 미래를 예상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더이상 자본은 장소와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유통한다. 바우만(Zygmunt Bauman)은 그의 책 『액체근대』에서 고체근대의 시대가 지나고 액체근대가 도래한다고 선언한다. 그렇다면 액체근대의 도래와 관련하여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자본의 성격이 달라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즉 삶의 환경이 어딘가 정박하는(고체화된) 형태가 아니라면 고체 근대가 요구하는 합리적 인간 상(象)-혹은 인격이나 자아 형성 방식- 역시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 달라졌다면 어떻게 달라진 것일까? 이 글에서는 액체 근대의 달라진 인격을 유추해보기 위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상호작용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탐색하기 위해 빌라 선샤인(Villa Sunshine)을 다루고자 한다. 빌라 선샤인은 2019년 5월 12일 첫 서비스를 시작하여 2020년 12월 18일 서비스를 종료한 유료 커뮤니티랩이다.¹⁾ 이곳은 일하는 밀레니얼 여성들이 서로에게 인맥이 돼주는 것으로 자신들의 사업 성격을 나타낸다. 즉 원하는 직업적 전망에 관하여 해당 일을 먼저 경험한 여성이 선배처럼 자신의 경험담과 노하우를 일러주는 네트워크 방식의 커뮤니티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다. 빌라 선샤인의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여성 CEO나 기획자들의 초청하여 강연을 하기도 하고 취미나 글쓰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도 하다. 프로그램들은 장소들을 이동하며 다른 곳에서 열린다. 그러나 빌라 선샤인이 여타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임파워먼트 프로그램들과 다른 점은 이곳이 커뮤니티, 즉 상호작용을 사업 내용의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뉴먼(빌라 선샤인의 멤버를 칭하는 말)들이 선배 여성 직장 선배가 되어 직접 프로그램을 짤 수 있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라운드 테이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격주로 <경험공유회>를 열어 다양한 일자리의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한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또한 스캇이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즉각적으로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이와 관련한 경험이 있는 다른 뉴먼이 답을 즉각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의사소통 매체를 운영하고 있다. 빌라 선샤인의 다양한 프로그램, 커뮤니티 방식을 통해 액체 근대의 다양해진 욕구를 자신이 스스로 포착할 수 있게 하는 테크놀로지와 새롭게 발견되는 관계맺기의 성격을 탐구하고자 한다.

1) 시즌6 통합 멤버십은 220,000원이었다. 시즌1 때보다 가격이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멤버십 가격이 상승하였는지 구체적 정보를 얻지 못했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대략 3달이다. 시즌 6 진행 기간은 2020년 10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였다.

2. 글쓰기 테크놀로지

빌라 선샤인의 대표인 홍진아는 N잡러로 유명하다. N잡러는 N개의 일을 하는 사람을 칭하는 신조어다. 사실상 N잡러는 액체근대의 유동하는 성격을 반영하는 신조어다. 바우만은 유동하는 액체근대의 삶 역시 불안정·불확실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근무하고 있던 공장은 언제든지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로 이동하면서 사라져버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람(시간)은 오랜 시간을 공들여서 미래를 계획해낼 수 없게 되고 즉시적으로 얻게 될 이익만을 계산하고 행동하게 된다. 마누엘 카스텔(Manuel Castells Oliván) 역시 『커뮤니케이션 권력』에서 의사소통의 권력은 “다차원적이고 힘을 가진 행위자의 이익과 가치에 따라 인간 활동의 각 영역에서 프로그래밍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구축”된다고 주장한다. (마누엘 카스텔, 2014. 581~2.) 액체근대에서 개인들은 계속해서 추가적인 가치를 찾아야 하고 욕망해야만 한다. N잡러는 직장을 이동해갈 수밖에 없는 액체근대의 속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징이다.

액체근대의 생존을 위한 유연성과 불확실성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상호작용을 축소시킨다. 즉 오래도록 시간을 들여서 신뢰를 쌓는 관계맺기가 축소될 것을 예견하게 한다. 조직에서의 상호작용은 미래에 대한(추상적인 확신을 기반하는) 희망을 내포한다. 가령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유리한 연봉 협상과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러나 직장 자체가 유동하는 세계자본주의에 따라 없어져 버릴 수 있고 경제적 유연화로 인해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져버린 이때, 당장 내일을 보장할 수 없게 되어버렸고 그에 따라 다양한 직업적 능력을 갖춰야 살아남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즉 희망을 품은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상호작용은 점차 사회에서 축소할 수밖에 없다.²⁾

다양한 직종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빠르게 달라진 업무 환경에 적응하는 것 역시 중요해진다. 이러한 트레이닝을 위해서 빌라 선샤인은 글쓰기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글쓰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빌라 선샤인은 뉴먼들이 변화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욕구를 추동할 수 있게 한다. 빌라 선샤인에서 판매하는 ‘뉴먼스 리뷰 워크북’은 자신들의 경험을 기록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책이다. “일과 삶에서 얻은 ‘나만의 경험(인상적인 장면, 나를 성장하게 한 것, 배운 점, 아쉬운 점)’”을 기록하여 언어화한다. 이를 통해 성취하고 싶은 능력이나 방향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빌라 선샤인의 언어화를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글쓰기는 임파워먼트(효능감)를 강화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이 어떤 일을 체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지 확신을 얻게 된다. 인정은 더이상 타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만이 나 자신을 인정할 따름이다.³⁾

2) 빌라 선샤인은 N잡러를 위해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대표 홍진아는 “출판계 마케터가 IT업계 마케터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마케터란 직종 자체를 바꾸는 일도” 혼한 세상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이들에게 관련 업계의 선배 여성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장(場)을 마련하기 위해 빌라 선샤인을 설립하였다. “내가 지금 하는 고민을 5~8년 정도 먼저 했던 사람을 만나게 하자!”가 목표인 것이다(한국일보, 2018.).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선배나 같이 프로젝트를 구성할 동료의 필요하다. 그래서 빌라 선샤인이 뉴먼들의 네트워크를 “일터 밖 동료 그룹(peer group)”이라고 칭한다. 직장 내 동료 그룹이 아니라 ‘일터 밖’의 동료들이다.

3)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상태로 어디로 나가야 할지, 어떻게 살지 막막할 때, 빌라선샤인 덕분에 저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고 싶은 걸 찾아볼 수 있었어요.(뉴먼의 빌라 선샤인 이용 후기)” “비건위크를 하면서 내 욕망과 취향을 자본이나 미디어의 영향력에서 조금씩 분리해내는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어요. 음식문화는 코드를 공유하는 영향력이 크잖아요. 내가 왜 치킨을 좋아하는지 생각해보면,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힘든 하루를 보낸 자기를 위해서 왜 비싼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정말 자기를 위한 보상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맛이나 포만감보다는 저작감이 그리울 때예요. 이런 걸 알아가는

빌라 선샤인의 글쓰기 테크놀로지는 생각과 욕구를 자신에게 부착된 채 명료해지지 못하는 욕구를 언어화하여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관찰할 수 있게 한다. 자기가 자신을 독자로서 관찰하고 판단한다. 평가와 판단은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역으로 존립하게 된다. 탈무드 굴뚝 청소부 우화처럼 나 자신을 알려면 타인이 필요하다는 교훈은 축소된다.

그런데 욕구를 언어화하여 개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어떠한 관계가 나에게 더 유익할지 비교가 가능해진다. 즉 관계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고 맞교환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일종의 아이러니다. 액체 근대의 자본이 유동하며 당장 내일의 안녕을 확신 받지 못하는 때, 오히려 관계는 그 가치를 계산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별로 필요 따른 선택적 관계맺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빌라 선샤인의 뉴먼들은 자신들의 직업적 전망에 관하여 노하우를 전수해줄 수 있는 선배 여성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 별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관계 맺기를 한다. 즉 그때그때의 욕구와 직업적 전망에 따라서,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적인 관계맺기를 하는 것이다. 상호작용의 도구화라고 분석이 가능하다. 소속과는 분리된 독립적 개인의 소통은 평등해야 한다. 이런 소통은 액체 근대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

결혼정보업체나 고위 경영자 과정 역시 필요에 따른 관계 맺기의 사례에 해당된다. 그러나 두 사례는 관계를 교환 가치화하지만 그렇게 맺어진 관계들은 결코 느슨하고 일시적이지 않다. 결혼을 통해 평생의 반려가 되기도 하고 고위 경영자 과정에서 만난 이들은 자신들 간의 끈끈한 연대와 우애를 다진다. 그런 점에서 필요에 따른 느슨하고 일시적인 관계 맺기의 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나 여기서 말하는 필요성은 유동하는 근대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낸다. 필요성 역시 한가지의 가치로만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필요성 역시 개인이 처한 상황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끊임없이 유동한다. 그렇기 N잡러가 탄생하는 것이고 필요에 따른 일시적이고 느슨한 관계 맺기가 형성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성은 N잡러의 유동하고 이동하는 필요성이다.

3. ‘YES and’ 의사소통 방식

“빌라선샤인에서 만난 멤버들과 대화하다보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경험하게 돼요. 덕분에 긍정적인 태도나 발언이 연습이 되고요.(뉴먼의 빌라 선샤인 이용 후기)”

마음이 정말 편안했어요. 쫓기듯 저 자신을 증명하고, 버텨야 하루가 끝나는 시절이었는데 그날은 누구도 저에게 ‘증명’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제 이야기가 그대로 전달되고, 또 되돌아오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뉴먼의 빌라 선샤인 이용 후기)

서울의 청년커뮤니티 작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에서 수행한 인터뷰어의 말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밀레니얼 세대의 청년들이 “온전히 나로서 판단 없이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중시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서 평가당하지 않는 의사소통인 Yes and의 소통을 추구한다고 밝힌다(듣는연구소, 2019. 70.). Yes and는 새로운 소통양식이다. 독립적 개인으로 자신의 자아를 설정하면서 이루어지는 소통양식이다. 과거와 달리 소속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고 자신의 욕구에 다양하게 계발해야 하는 시대의 개인은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아니라 조직

게 재밌어요. 자기 취향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어떤 왜곡이 있는지 발견하면 나중에는 큰 전환을 만들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요.(뉴먼의 빌라 선샤인 이용 후기)”

과 분리된 독립적 개인이다.

Yes and의 소통은 빌라 선샤인에서도 확인된다. 그런데 이러한 의사소통은 조직과 분리된 독립적 개인화로 인해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객관적으로 이해하여 당장 자신에게 중요한 필요성을 선별하는 데서도 파생한다. 이미 자신이 인정하고 파악한 자신의 한계와 문제점에 타인의 주관적 판단은 끼어들 수 없다. 타인의 개인적인 경험이 나의 직업적 전망·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경로와 비슷한지 확인하게 된다. 타인의 주관적 평가는 나와는 연관이 없는 개인적인 경로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개인적 경험은 직업적 영역이 분업화되고 다양해진 오늘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험일 수 있다. 나의 직업적 욕구와 연관성이 없는 개인의 경험은 자신의 직업적 전망에 하나의 노하우로 쓰일 수가 없다. 이미 언어화하여 객관화시킨 자신에 대한 사실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욕구가 다양해진만큼(혹은 다양하게 계발되어져야 하는만큼) 원하는 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테크놀로지가 필요해진다. 액체근대의 시대적 환경과 테크놀로지가 결합하여 독립적 개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에 개인적 영역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된다. 그래서 의사소통 역시 판단과 평가가 아니라 Yes and의 방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4. 나가며

독립적 개인화와 달라진 상호작용에 대해서 집합성과 연대가 깨질 것이라는 우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의 저변에는 전통적인 연대, 즉 조직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친 결속력이 강한 연대가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잠시 판단을 중지한 채 미루어 두어야 한다. 시대의 양태가 달라지면서 전통적 상호작용 역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 때, 전통적인 연대의 방식 역시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가정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질문해볼 수 있다. 정말로 연대는 사라져 버린 것인가? 아니면 느슨하고 일시적 상호작용 방식에 걸맞는 연대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인가? 필자는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 왜냐하면 사람 사는 세상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그로 인한 감정적 교류, 충만함이 사라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것은 생물학적 인간의 원초적 욕구이다. 인간은 아무리 4차산업이 성행하는 시대에도 인간이다. 다만 우리가 인간성, 혹은 인격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가령 감정과 같은)이 어떻게 달라지고 작동하는지, 축소하는지 확대하는지, 생물학적 인간의 원초적 속성이 뿌리째 뽑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작동 양식을 살펴봐야 한다. 그로 인해 사회의 구성도 달라지게 되는 양상을 추적해야 하는 쪽이 피와 뼈와 살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다 더 합당하다고 여겨진다.